

봉독 프로폴리스 등 양봉산물 축산물 등재 필요성 제기

농림부, 농진청, 협회 등 도시락 포럼서 논의

봉독, 프로폴리스, 수벌번데기 등도 축산물로 등재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는 지난 9월3일 양봉산업관련법 개정을 위한 '잠사양봉소재과 녹색농촌 도시락 포럼'을 열고 양봉산물의 식품 및 축산물 등록 확대에 대해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양봉협회 최규칠 사무총장과 허태웅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문원탁 주무관, 정향영 농진청 농업생물부장, 이광길 잠사양봉소재과장 외 농업생물부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는 축산법상의 양봉산물에 대한 등록현황이 현실적인 양봉산물의 의미와 상이하다며 향후 법 개정 가능성 여부를 논의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양봉산물의 개념은 꿀벌이 생산하는 산물 전체를 의미하므로 봉독, 프로폴리스, 수벌번데기 등이 축산물로 등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처럼 법이 개정될 경우 양봉농가의 수익창출 및 가계안정을 위한 다양한 양봉산물의 축산물 등록이 확대되고, 양봉산물의 2차·3차 가공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

봉산물이 축산물로 등록이 되면 식품 등록이 되고 기능성 식품으로서 등록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농진청 시험연구사업 수행결과 봉독의 동물질병 치료용 소재로의 우수성 검증, 수벌번데기의 영양적 가치 우수, 프로폴리스의 식·의약품 소재 개발 가능성 등 다양한 형태의 2차·3차 산물 개발 가능성을 확인할 만한 연구결과가 도출됐다는 것이다.

이에 농진청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양봉산물의 축산물 등록을 추진하고 봉독(봉침액)의 동물약품 등록을 위한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프로폴리스 가공 등을 통해 기능성 식품 등재 및 의약품을 개발하는 한편 수벌번데기를 이용한 고단백 식품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봉**